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준말은 본말 중 일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말이다. 한글 맞춤법은 준말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중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열매를) 따-+-아→따/*따아’, ‘따-+-았-+-다→따따/*따았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ㅏ, ㅑ’가 줄어들지 않는다. ‘(꿀물을) 젓-+-어→저어/*저’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제34항 [붙임 1]에서는 어간 끝 모음 ‘ㅙ, ㅞ’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 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손을) 떼-+-어→떼어/떼’에서 보듯이 본말과 준말 모두로 적을 수 있다. 다만 모음이 줄어들어서 ‘ㅙ’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차-’와 ‘-이-’의 모음이 줄어든 ‘채-’의 경우 ‘(밭에) 채-+-어→채어/*채’에서 보듯이 모음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것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표준어 규정 제14항에서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음을, 제16항에서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음을 제시하고 있다. ‘온갖/*온가지’는 전자의 예이고, ‘(일을) 서두르다/서둘다’는 후자의 예이다. 다만 후자에서 용언의 어간이 줄어든 일부 준말의 경우, 준말이 표준어로 인정되더라도 준말의 활용형은 제한되는 예도 있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준말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두르다’의 준말 ‘서둘다’는 자음 어미 ‘-고, -지’가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들고’, ‘서들지’가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들어’, ‘*서들었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규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밭을) 매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매어’의 경우, 준말인 ‘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병이) 낫-+-아’의 경우, ‘ㅏ’가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③ ‘(땅이)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패다’의 ‘ㅙ’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패’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④ ‘(잡초를) 베-+-았-+-다’와 ‘(베개를) 베-+-었-+-다’의 경우, 준말의 형태인 ‘뻬다’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⑤ ‘(강을) 건너-+-어’와 ‘(줄을) 서-+-어’의 경우, ‘ㅑ’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므로 본말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 ~ ㉣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A]에 들어갈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탐구 과정]

○ 답지를 ㉠ 걸다(←거두다) ○ 가사를 ㉡ 외다(←외우다)
 ○ 일에 ㉢ 서둘다(←서투르다) ○ 집에 ㉣ 머물다(←머무르다)

↓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A]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7.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조사나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객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사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ㄱ.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할머니께 여쭙러 가거라.
 ㄴ. (점원이 손님에게)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ㄷ. (동생이 형님에게) 저 기다리지 마시고 형님은 먼저 주무십시오.

- ① ㄱ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② ㄴ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ㄱ과 ㄴ에서는 모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④ ㄴ과 ㄷ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조사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ㄱ~ㄷ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38. <보기>에 제시된 ㉠~㉣의 발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웃고름[온꼬름] ㉡ 색연필[생년필] ㉢ 꽃망울[꼰망울]
 ㉣ 벽난로[병날로] ㉤ 벼훅이[벼훅치]

- ① ㉠: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첫째 음절의 중성 위치와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 ② ㉡: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조음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 첫째 음절의 중성 위치에서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 ④ ㉣: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둘째 음절의 중성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을 통해 중세 국어의 격 조사가 실현된 양상을 탐구해 보자.

- ㉠ 太子(태자+ㅅ) 벉들 사ㅁ샤 時常 겨퇴(결+의) 이셔
(현대어 풀이: 태자의 벉을 삼으시어 늘 곁에 있어)
- ㉡ 衆生의(중생+의) ㅁ스물(ㅁ슴+을) 조차
(현대어 풀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 ㉢ 니르고져 훅 배(바+ㅣ) 이셔도 ㅁ춤내 제 ㅁ들(ㅁ+을)
(현대어 풀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 ㉣ 바르래(바를+애) ㅁ르미(ㅁ름+이) 자고
(현대어 풀이: 바다에 바람이 자고)
- ㉤ 그르세(그릇+에) 담고 벉의 고기란 도기(독+의) 다마
(현대어 풀이: 그릇에 담고 벉의 고기는 독에 담아)

비교 자료	탐구 결과
① ㉠의 '太子' / ㉡의 '衆生의'	체언이 무정 명사이냐 유정 명사이냐에 따라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의 '겨퇴' / ㉤의 '도기'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의 'ㅁ스물' / ㉣의 'ㅁ들'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의 '배' / ㉤의 'ㅁ르미'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의 '바르래' / ㉤의 '그르세'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40~42]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다음 화제인 쇼트폼(short-form)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막 기능을 켜 주세요. 쇼트폼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쇼트폼은 짧게는 15초에서 60초, ㉠ 길어도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합니다. 쇼트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진행자: (시청 후) 현재 기준으로 무려 조회 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 지금도 조회 수가 올라가고 있군요. 이렇게 쇼트폼이 인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 ㉢ 쇼트폼은 짧고 재미있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이유지요. 이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는 현대인의 성향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실시간 채팅'에 '셋별' 님이 '1분짜리 요리 과정 영상을 자주 보는데, 이것도 쇼트폼인가요?'라는 질문을 방금 올려 주셨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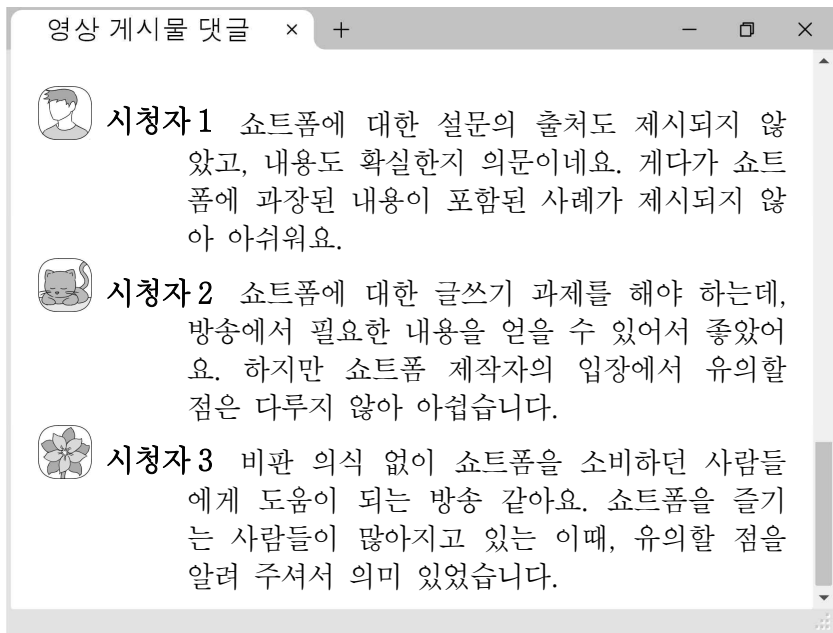


전문가: 예, 쇼트폼입니다. 쇼트폼을 통해 요리뿐 아니라 패션, 경제, 과학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기존 미디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설문에서 쇼트폼을 통해 뉴스를 시청한다고 28%나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기업들이 쇼트폼을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쇼트폼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파급력이 있고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이 쇼트폼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에 쇼트폼 마케팅 사례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더 보기'를 클릭하면 블로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일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 쇼트폼을 시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 수를 높이려다 보니, 쇼트폼에는 자극적인 장면이나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쇼트폼의 장면을 선불리 따라하거나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시간 채팅' 아래에 관련 영상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시청해 보셔도 좋겠네요.
 진행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 두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자의 크기와 글꼴을 달리하여 방송에서 다루는 중심 화제를 부각하고 있군.
- ② ㉡: 전문가의 발언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고 있군.
- ③ ㉢: 방송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군.
- ④ ㉣: 방송 중 언급된 블로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⑤ ㉤: 방송에서 송출되는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보여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군.

41. 다음은 시청자들이 올린 댓글의 일부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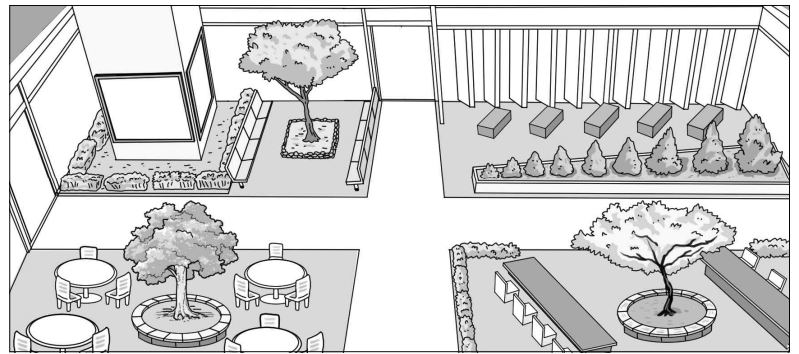
- ① 시청자 1과 시청자 2는 모두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모두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2는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시청자 2와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시의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2.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부정 표현을 활용해 쇼트폼의 재생 시간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 ② b: 진행상을 활용해 현재 쇼트폼의 조회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대등적 연결 어미를 연속적으로 활용해 쇼트폼이 인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④ d: 설명 의문문을 활용해 쇼트폼 시청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e: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를 활용해 쇼트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43~45] (가)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이고, (나)는 학생회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우리 학교에 친환경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원의 벤치, 테이블, 화단 틀 등을 보셨나요? 그것들은 모두 폐현수막과 폐의류를 재활용한 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친환경 정원 조성의 취지를 알리고 친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친환경의 의미를 담은 시화 관람, 물품 나눔, 친환경 생활을 위한 한 줄 다짐 쓰기,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https://○○○.hs.kr/66193/subMenu.do>

★ 참여 신청 및 문의 사항은 학생회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좋아요 댓글 읽기 메시지 보내기

art 님 외 67명이 좋아합니다.

17시간 전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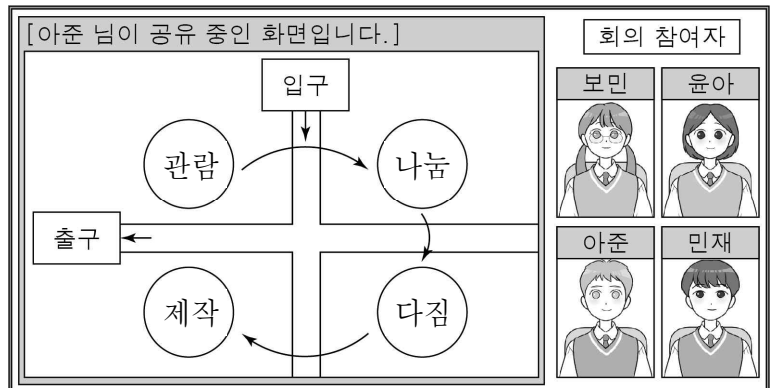
게시

(나)

보민: 지난 회의에서 친환경 체험 행사의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행사 안내도를 만들기로 했잖아. 회의를 시작해 볼까?

아준: 정원의 조감도를 이용해 안내도 초안을 만들면서 활동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 봤어. 화면을 봐 줘.

채팅 아준 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윤아: 화면에서는 시화 관람, 물품 나눔, 한 줄 다짐 쓰기,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순으로 체험 순서를 제시했는데, 체험 순서를 정하면 학생들의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겠어.

민재: ‘관람’, ‘나눔’, ‘제작’에서의 활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고, ‘다짐’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면 좋겠어. 아준이가 안내도 초안을 만들기로 했잖아. 그걸 보면서 얘기해 볼까?

아준: 모두 첨부 파일을 확인해 줘.

채팅 아준 님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pdf

민재: 안내도 초안에도 화살표가 있네. 체험 순서와 출입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모두 지우면 좋겠어.

보민: 한 줄 다짐 쓰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제작’과 ‘다짐’의 활동 공간을 서로 바꾸면 좋겠어. 이에 대한 의견 줘.

아준: ‘다짐’의 활동 공간을 출구 가까이에 배치해 학생들이 그 활동에 참여한 후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윤아: 나도 그게 좋아. 그런데 ‘제작’이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 ‘재생’으로 바꾸면 어떨까? 동의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줘.

보민: 모두 동의하는구나. 그럼 이제는 환경 단체에서 주최한 체험 행사 안내도를 참고해서 안내도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파일을 전송할게.

채팅 보민 님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pdf

민재: 환경 단체의 안내도에서는 조감도에 각 공간의 이름을 번호와 함께 표시하고 그에 대한 범례를 따로 두어 활동을 안내했네. 이에 비해 우리 초안은 조감도에 글자가 많아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

아준: 우리도 범례를 환경 단체의 안내도처럼 따로 두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행사 일시와 장소도 추가하는 것이 어때?

윤아: 행사명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행사명을 안내도 상단에 제시하고 그 아래 행사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자.

보민: 좋은 의견들을 줘서 고마워. 오늘 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함께 안내도를 완성해 보자.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수용자의 반응을 숫자로 제시하여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선호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정보 전달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언어와 시각 자료를 결합한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44. ㉠, ㉡과 관련하여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안내 효과를 바탕으로 ㉡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 ② ㉡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여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③ ㉡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의 불필요한 구성 요소를 삭제했다.
- ④ ㉠과 ㉡의 차이점을 근거로 ㉡의 구성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 ⑤ ㉠과 ㉡을 비교하여 안내 효과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45.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안내도’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고등학교 친환경 체험 행사 안내도

○ 일시: 20××년 3월 23일 14:00
○ 장소: 친환경 정원

<범례>

- ① 관람: 친환경의 의미를 담은 시화 관람하기
- ② 나눔: 물품 서로 나누기
- ③ 재생: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 ④ 다짐: 친환경 생활을 위한 한 줄 다짐 쓰기

- ① 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도 상단에 행사명을 제시했다.
- ② 보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짐’의 활동 공간을 출구 가까이 배치했다.
- ③ 민재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구와 출구에 출입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 ④ 아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을 범례로 안내했다.
- ⑤ 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활용품으로 물품을 만드는 활동 공간의 이름을 ‘재생’으로 정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조언을 반영하였다. ③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 해당 문장을 삭제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⑤ <보기>의 다섯 번째 문장을 치유 농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이해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구체화하였으므로, 해당 문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40.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는 학생 3의 발화를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여행을 통해 학업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소감문의 내용을 홍보하는 글에 포함하자는 의미인지 학생 3에게 확인하고 있다. [B]의 대화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는 학생 2의 발화를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여행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홍보하는 글에 제시하자는 의미인지 학생 2에게 확인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 맥락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다.

(나)에서 학생 3은 다음번 모임을 위해, 학생회 게시판에 올랐던 소감문에서 지난번 치유 농업 여행의 부족한 점이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논의할 사항을 메모해 오겠다고 하였다. 소감문에는 안전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참가자 안전 교육과 관련한 검토는 학생 3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학생 2가 작성한 초고에는 소 겨안기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고 했는데, (나)의 학생들 대화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② 치유 농업 여행에서 학업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소감문의 내용을 학생 2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치유 농업 여행이 준 만족감을 표현한 소감문의 내용을 홍보하는 글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치유 농업 여행 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내용을 학생 2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문 조사의 만족도 결과를 홍보하는 글에 간단하게 언급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1문단에서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심각성이 크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2문단, 3문단에서 문제의 원인을 이용객의 캠핑 용품 사용 안전 수칙 미준수, 캠핑장 사업자의 소방 시설 미비, 관계 당국의 감독 소홀, 부주의한 난방 기기 사용 등으로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이나, 그에 대한 반박을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심각하다는 문제 상황은 있지만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캠핑장 이용객, 사업자, 관계 당국이라는 문제 해결의 주체와 관련지어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 사고 없는 안전한 캠핑이 이뤄진다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가-2)는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로, 화재, 물리적 충격, 일산화 탄소 중독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신문 기사로 캠핑 중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증가한다는 점과 소방 시설의 미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캠핑장 사고 사례를 보여 준다.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보다 많다는 1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다. 또한 1문단에서는 캠핑장에서의 화재나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심각성이 크지만, 캠핑장 안전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화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보다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보다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1)은 통계 자료로 캠핑장 안전사고 중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캠핑장에서의 안전사고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가-2)는 통계 자료로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58.1%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재 관련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2문단의 내용에 58.1%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나)는 소방 시설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캠핑장 사고 사례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이다. 이를 소방 시설의 미비와 관리 감독의 소홀은 화재의 조기 진화를 어렵게 하여 인명 피해를 키운다는 2문단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⑤ (나)의 신문 기사에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생명을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예년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다)의 전문가 인터뷰에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보다 인명 피해율이 높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를 활용하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함에도 캠핑 중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①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①	44	②
45	③								

35.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잡초를) 베-+-있-+-다’와 ‘(베개를) 베-+-있-+-다’가 어울려 줄 적에는 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 1]의 적용을 받는다. 즉 어간 끝 모음 ‘내, 귀’ 뒤에 ‘-어, -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준말의 형태인 ‘뻗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을 적용한다.

‘서툴다’(←서투르다)는 모음 ‘-’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르’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서툴어, *서툴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머물다’(←머무르다)는 모음 ‘-’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르’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머물어, *머물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높임 표현의 실현 양상을 파악한다.

ㄱ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한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여쭙러’가 사용되었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발음 사례를 탐구한다.

‘벽난로’에서는 중성 위치의 ‘ㄱ’에서 ‘ㅇ’으로의 음운

변동이, 중성 위치의 ‘ㄴ’에서 ‘ㄹ’로의 음운 변동이 각각 일어난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격 조사를 이해한다.

‘바르래’는 체언 ‘바랄’의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고, ‘그르세’는 체언 ‘그릇’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즉,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실시간 채팅’은 방송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실시간 채팅’에서 ‘셋별’이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시청자 1은 설문의 출처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쇼트폼의 사례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시청자 1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청자 3은 방송이 비판 의식 없이 쇼트폼을 소비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유의할 점을 알려 주어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에는 ‘고’가 있다.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에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가)에서 게시물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용자의 수가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선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나)의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정보 전달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에서 시간 제한을 생각해서 정보량을 조절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성 언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민재는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 초안과 비교했다. 이어서 아준은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를 참고하여 범례를 따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참고해서 ㉡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민재는 두 번째 말에서 체험의 순서를 나타내는 화살표와 출입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오답풀이] ① 윤아의 마지막 말에 행사 이름과 위치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민은 ‘제작’과 ‘다짐’의 공간 위치를 서로 바꿀 것을 제안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아준은 마지막 말에서 환경 단체 안내도에서 범례를 따로 둔 것처럼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에서도 범례를 따로 두자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윤아는 두 번째 말에서 ‘제작’이 활동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생’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는 같으나 의미에 연관성이 없는 단어의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 하고, 이러한 관계를 가진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부른다. 동음이의어는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른 것도 있다. 전자를 동형 동음이의어, 후자를 이형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을 벗다.’의 ‘신’과 ‘신이 나다.’의 ‘신’은 동형 동음이의어이고 ‘걸음’과 ‘거름’은 이형 동음이의어이다.

한편, 동음이의어를 절대 동음이의어와 부분 동음이의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절대 동음이의어는 품사 등의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면서 단어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이때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은 동음이의어가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거나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동일한 용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모자를 쓰다.’의 ‘쓰다’와 ‘편지를 쓰다.’의 ‘쓰다’는 품사가 동사로 동일하고, ‘쓰고, 써, 쓰니’ 등과 같이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서로 동일하므로 절대 동음이의어이다.

부분 동음이의어는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가의 두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날아가는 새’의 ‘새’와 ‘새 신발’의 ‘새’는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지만 각각 명사와 관형사로, 문법적 성질은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김치독을 땅에 묻다.’의 ‘묻다’와 ‘길을 묻다.’의 ‘묻다’는 둘 다 동사이지만 각각 ‘묻고, 묻어, 묻으니’, ‘묻고, 물어, 묻으니’와 같이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앞에서 말한 ㉠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동음이의어도 존재하는데, 이는 동음이의어가 각각 동사와 형용사이면서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의 ‘반드시’와 ‘반듯이 앉아 있다.’의 ‘반듯이’는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르므로 이형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② ‘그 책을 줘.’의 ‘그’와 ‘그는 여기 있다.’의 ‘그’는 모두 대명사이고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므로 절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③ ‘전등을 갈다.’의 ‘갈다’와 ‘칼을 갈다.’의 ‘갈다’는 모두 동사이고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므로 절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④ ‘커피를 건다.’의 ‘건다’와 ‘비를 맞으며 건다.’의 ‘건다’는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부분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⑤ ‘한 사람이 왔다.’의 ‘한’과 ‘힘이 닿는 한 돕겠다.’의 ‘한’은 각각 관형사와 명사로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분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36.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옳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누르다	1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2	먼 산에 누르고 붉게 든 단풍이 아름답다.
이르다	1	약속 장소에 이르니 그의 모습이 보였다.
	2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니 다시 도전하자.
	3	그에게 조심하라고 이르니 고개를 끄덕였다.
바르다	1	생선 가시를 바르고 살을 아이에게 주었다.
	2	방에 벽지를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 ①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2
- ②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3
- ③ 누르다 1과 2, 바르다 1과 2
- ④ 이르다 1과 2, 바르다 1과 2
- ⑤ 이르다 1과 3, 바르다 1과 2

37. 다음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활동>

- 카드에는 한 개의 단어와 그 단어의 표준 발음이 적혀 있다.
- 카드에 적힌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과 유형별 횟수가 같은 카드끼리는 짝을 이룬다.
- 단, 음운 변동 유형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만 구분하고, 음운 변동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흙빛[흑뽀]’이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카드와 짝을 이룬다.

국화꽃 [구과꽃]	옆집 [엽집]	침낭쿨 [칭낭쿨]	삿일 [상닐]	호박엿 [호:방년]
㉠	㉡	㉢	㉣	㉤

- ① ‘백합화[배카화]’가 적힌 카드는 축약이 두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과 짝을 이룬다.
- ② ‘삿살이[삿싸치]’가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와 짝을 이룬다.
- ③ ‘값없이[가법씨]’가 적힌 카드는 교체와 탈락이 한 번씩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와 짝을 이룬다.
- ④ ‘뭉뭉이[몽뭉씨]’가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와 짝을 이룬다.
- ⑤ ‘백분율[백뽀율]’이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와 짝을 이룬다.

2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의미 단위를 절이라 한다. 문장에서 부속 성분으로 쓰인 절은 수식의 기능을 하여 생략될 수 있지만, ㉠ 부속 성분이면서도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여 생략될 수 없는 절도 있다.

- ① 우리는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였다.
- ② 나는 그가 있는 가게로 저녁에 갔다.
- ③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 버렸다.
- ④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 ⑤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39. <보기>의 자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 **부텃** 덩바깃뻬 **노퍽샤** 뽀머리 **ᄃᄂᄃᄃᄃ**
 [현대어 풀이] 부처님의 정수리뻬가 높으시어 튼 머리 같으시므로

[중세 국어] 大臣이 이 藥 ᄃᄂᄃᄃᄃ 大王의 **받즈ᄃᄃᄃ** 王이 **좌시ᄃᄃ**
 [현대어 풀이] 대신이 이 약을 만들어 대왕께 바치니 왕이 드시고

- ① ‘부텃’을 보니, 높임의 대상에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노퍽샤’를 보니, 대상의 신체 일부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ᄃᄂᄃᄃᄃ’를 보니,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받즈ᄃᄃᄃ’를 보니,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⑤ ‘좌시ᄃᄃ’를 보니,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0 ~ 43] (가)는 ○○군 공식 블로그이고, (나)는 영상 제작을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군 공식 블로그 × +
 ← → ↻ ⏪ ⏩ https://blog.○○.go.kr/12345
 ○○군 홍보 연재 3탄! <치유농업을 아시나요?>

㉠ 오늘은 일상에 지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이나 산업을 의미합니다. ㉡ 농업 활동은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면서 운동 능력을 강화해 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지역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 그중 원예 체험 행사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열고 있습니다. ㉣ 이 행사에 참여한 A씨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져서 만족스러워요. 딸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 많은 사람들이 치유농업에 대해 잘 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치유농업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파일: 치유농업 홍보 영상 공모전 안내.hwp

댓글

↳ [서연] 치유농업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고등학생인데, 팀으로 영상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나요?
 ↳ [블로그 관리자] 네, 팀별 참가도 가능합니다. 영상 공모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해요.^^

(나)

PM 08:45 2023년 4월 ○○일 수요일 73%

학교에서 말한 영상 공모전에 대해 회의하려고 우리 모두 대 서연
 회방 열었어. 우선 내가 본 ○○군 블로그 글 공유할게.
<https://blog.○○.go.kr/12345>

수진 서연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치유농업을 다룬 뉴스를 찾아 봤
 어. 이 영상 한번 봐 봐. 치유농업이 인지적 기능까지도 향상
 시켜 준다고 하더라고
<https://△△△news.com/7890>

태준 "치유농업" 효과 탁월
 추가적인 것까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자료네. 🗣️

다들 이제 치유농업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됐을 서연
 것 같아. 그럼 영상 제작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내가 미리 간단한 영상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봤어.
 파일 전송: 치유농업 홍보 영상 제작 계획서.hwp(7.0MB)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 줘.

지훈 서연에게 답장
내가 미리 간단한 영상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봤어.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어? 대단하다!
역시 철저한 준비생!

태준 '치유농업의 개념-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 세 부분으로 나누었네. 다들 어떻게 생각해?

수진 좋아. 그런데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아.

태준 그럼 개인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한 장면에 배치하고 마지막 장면에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제시하자.

서연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영상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 장면은 농촌 풍경을 보여 주면서 치유농업의 개념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했는데 어때?

지훈 높은 곳에서 멀리 내려다보는 각도로 마을을 촬영해서 고즈넉한 농촌 풍경을 담아내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풍경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도 삽입하자.

수진 그런데 개념을 내레이션으로만 제시하기보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함께 제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태준 찬성. 그다음 장면으로 두 종류의 열매 이미지 안에 치유농업이 개인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넣어서 제시하면 시각적인 전달력이 높아질 거야.

지훈 그래. 열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효과음을 함께 제시하자. 그 다음에 열매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치유농업을 통해 결실을 얻는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어.

수진 마지막 장면은 참여를 권유하는 말을 다양한 사람들이 외치게 하여 참여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드러내자.

서연 의견 제시해 줘서 고마워. 너희 의견 반영해서 영상 제작 계획서 수정해 볼게.

태준 그럼, 촬영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수진 투표로 결정하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투표해 줘.
투표하러 가기 >

지훈 응. 알았어.

40. (가)와 (나)에 드러나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가 불특정한 다수의 정보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 소통하고 있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생산한 정보의 내용을 정보 수용자가 직접 수정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결합한 형태로 정보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1. (나)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연'은 문서 파일을 공유하며 대화 참여자들에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진'은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 ③ '지훈'은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자료 준비 태도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태준'은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준비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수진'은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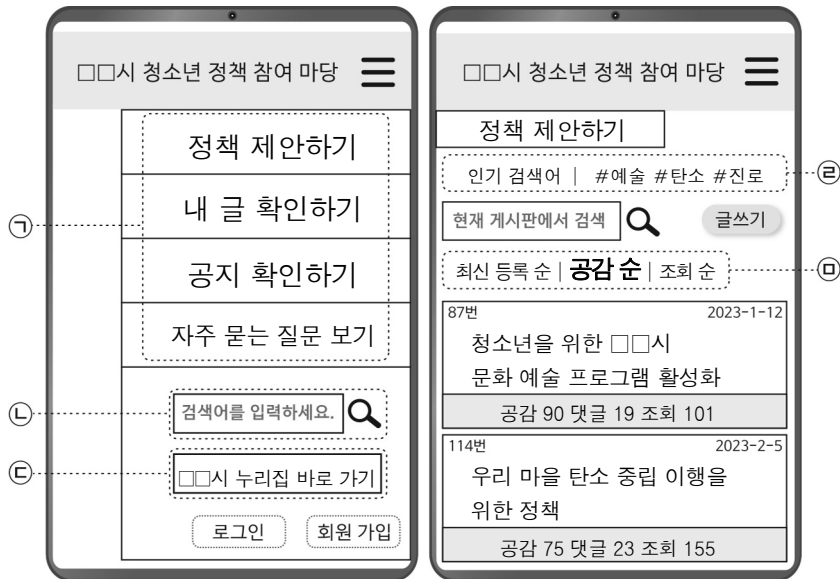
- ① ㉠: 연결 어미 '-려고'를 사용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운동 능력 강화의 조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원예 체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행사 참여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 ⑤ ㉤: 연결 어미 '-아서'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43. (나)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서연'이 수정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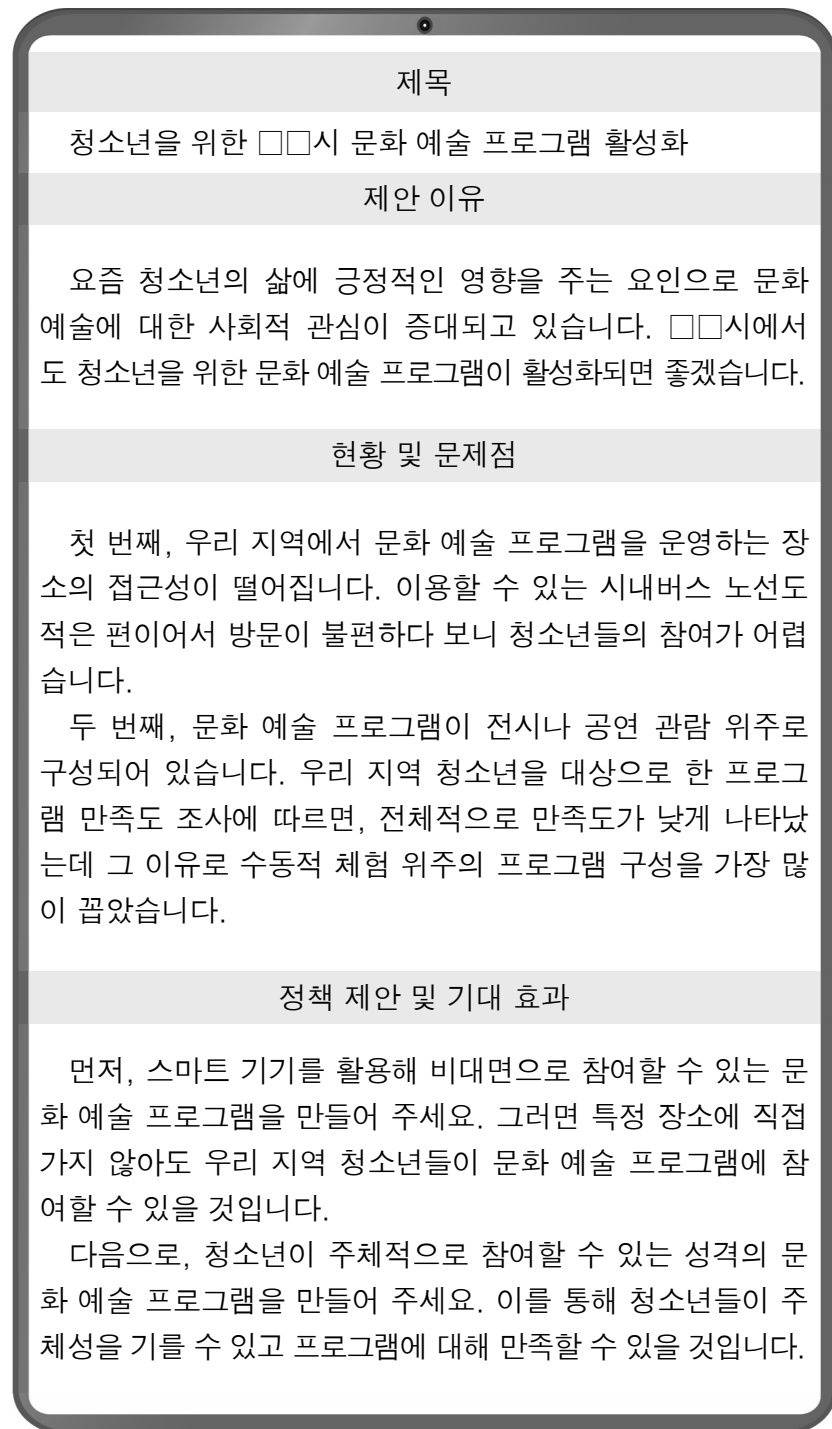
영상 제작 계획	
장면 구상	장면 스케치
① 산 위에서 촬영한 마을의 정경과 잔잔한 배경 음악을 함께 제시하여 평화로운 농촌의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연출해야겠어.	
② 치유농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레이션과 함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자막을 제시하여 전달 효과를 높여야겠어.	
③ 사과와 포도 모양의 이미지 안에 개인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기록하여 치유농업의 효과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	
④ 농부가 열매를 하나씩 수확할 때마다 효과음을 삽입하여 치유농업을 통해 얻는 결실의 의미를 시각뿐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강조해야겠어.	
⑤ '치유농업 함께해요'를 외치는 인물들의 성별과 연령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치유농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연출해야겠어.	

[44 ~ 45]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시 청소년 정책 참여 마당'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화면 2] ([화면 1]에서 8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44. [화면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보니,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분류하여 제시하였군.
- ② B를 보니, 이용자가 찾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제시하였군.
- ③ C를 보니,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지정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시하였군.
- ④ D를 보니, 사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화제를 알 수 있도록 인기 검색어를 열거하여 제시하였군.
- ⑤ E를 보니,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게시물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게시물의 정렬 기준을 제시하였군.

45. 다음은 [화면 2]에 대한 학생들의 댓글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최근 문화 예술 경험이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 2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까지 시내버스 말고도 셔틀버스가 운영돼서 쉽게 방문할 수 있으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 학생 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수동적인 체험 방식 때문에 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셨는데, 출처가 없어서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학생 4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실제로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학생 5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① '학생 1'은 '제안 이유'에서 언급한 사회적 관심에 주목하여, 최근 문화 예술 경험의 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제안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현황 및 문제점'에서 언급한 접근성 문제에 주목하여, 실제로는 다른 교통편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현황 및 문제점'에서 제시한 만족도 조사 자료에 주목하여,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학생 4'는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제안한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설에 주목하여,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학생 5'는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의 성격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①	37	③	38	⑤	39	④
40	②	41	②	42	②	43	④	44	⑤
45	④								

35. [출제의도] 동음이의어의 유형 이해하기

‘그 책을 쥐.’의 ‘그’는 관형사이고 ‘그는 여기 있다.’의 ‘그’는 대명사로, 두 단어는 모두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지만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반드시’와 ‘반듯이’는 모두 [반드시]로 발음되어 소리가 같지만 표기가 다르므로 적절하다. ③ ‘전등을 같다.’의 ‘같다’와 ‘칼을 같다.’의 ‘같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동일하고, 모두 ‘같이, 가니, 가오.’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므로 적절하다. ④ ‘커피를 건다.’의 ‘건다’는 ‘건고, 건어, 건으니’와 같이 활용하고 ‘비를 맞으며 건다.’의 ‘건다’는 ‘건고, 건어, 건으니’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한 사람이 왔다.’의 ‘한’은 관형사이고, ‘힘이 닿는 한 돕겠다.’의 ‘한’은 명사로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과 품사 이해하기

‘누르다 1’은 동사이고 ‘누르니, 눌러’와 같이 활용하며, ‘누르다 2’는 형용사이고 ‘누르니, 누르러’와 같이 활용하여, 두 단어는 품사가 다르고 활용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또 ‘이르다 1’은 동사이고 ‘이르니, 이르러’와 같이 활용하며, ‘이르다 2’는 형용사이고 ‘이르니, 일러’와 같이 활용하므로 두 단어는 품사가 다르고 활용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르다 1’과 ‘이르다 3’은 모두 동사이고 ‘이르니, 일러’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하며, ‘바르다 1’과 ‘바르다 2’ 또한 모두 동사이고 ‘바르니, 발라’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는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2’이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

‘값없이[가법씨]’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 ㉠의 ‘침녕률[칭녕쿨]’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나 모두 탈락과 교체 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① ‘백합화[백하피]’는 거센소리되기 두 번 일어나 축약이 두 번, ㉡의 ‘국화꽃[구화꼇]’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 일어나 교체와 축약이 각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살살이[산사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나 교체가 세 번, ㉢의 ‘열집[염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일어나 교체가 두 번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뭇뭇이[몽목씨]’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일어나 탈락이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의 ‘살일[상닐]’은 자음군 단순화, ‘ㄹ’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탈락, 첨가, 교체가 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백분율[백뽀율]’은 된소리되기과 ‘ㄹ’첨가가 일어나 교체와 첨가가 각 한 번씩 일어나고, ㉤의 ‘호박엿[호:방닐]’은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ㄹ’첨가가 일어나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부사절 ‘재주가 있께’는 서술어 ‘생겼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① 부사절 ‘밤이 세도록’은 서술어 ‘하였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② 관형절 ‘그가 있는’은 서술어 ‘갔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부사절 ‘말도 없이’는 서술어 ‘떠나 버렸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관형절 ‘부지런한’과 부사절 ‘나와는 달리’는 서술어 ‘일어난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받초분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대왕’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부텨’는 높임의 대상인 ‘부터’에 관형격 조사 ‘사’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② ‘노프샤’는 ‘부터’의 신체 일부인 ‘덩바깃뻬’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구트실씨’는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제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④ ‘좌시다’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로서 주제인 ‘왕’을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가)는 ○○군 공식 블로그로 정보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의 정보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나)는 휴대 전화 메시지로 정보 생산자가 ‘우리 모두 대화방’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식 분석하기

‘수진’은 치유농업을 다룬 뉴스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치유농업이 인지적 기능까지도 향상시켜 준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서연’은 ‘치유농업 홍보 영상 제작 계획서.hwp’를 공유하며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에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지훈’은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서연’에게 ‘언제 이런 걸~ 철저한 준비성!’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자료 준비 태도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태준’은 ‘추가적인 것까지~ 좋은 자료네.’라고 하며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반응을 ‘수진’에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진’은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투표해 줘.’라고 하며 대화 참여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에서 ‘주면서’의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드리려고’의 ‘-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에서’는 앞말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원에 체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행사 참여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물라서’의 ‘-아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지훈’의 세 번째 말을 보면 ‘열매가 하나씩 나올 때

마다 효과음을 함께 제시하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지훈’의 두 번째 말을 보면 ‘높은 곳에서~배경 음악도 삽입하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진’의 세 번째 말을 보면 ‘그런데 개념을~좋은 것 같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태준’의 네 번째 말을 보면 ‘그다음 장면으로~높아질 거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수진’의 네 번째 말을 보면 ‘마지막 장면은~없음을 드러내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특성 이해하기

㉠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신 등록 순, 공감 순, 조회 순’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게시물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지 게시물의 개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하기, 내 글 확인하기, 공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기’로 게시판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이용자가 찾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이용자가 ‘□□시 청소년 정책 참여 마당’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지정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시 누리집 바로 가기’ 링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는 ‘예술, 탄소, 진로’와 같이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화제를 알 수 있는 인기 검색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학생 4’는 [화면 2]의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스마트 기기를~만들어 주세요’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스마트 기기를~많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의~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화면 2]의 ‘제안 이유’에서 ‘요즘 청소년의~증대되고 있습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최근 문화 예술 경험의~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정책 제안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화면 2]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접근성이 떨어집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시내버스 말고도 서둘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화면 2]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우리 지역~많이 품었습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출처가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④ ‘학생 5’는 [화면 2]의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만들어 주세요’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자기 주도적인~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여 정책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다. ‘안’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의지 부정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주어의 능력 또는 상황에 의한 부정을 나타낸다. ‘안’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안(아니)’이나 용언 ‘아니다’, 보조 용언 ‘아니하다(않다)’를, ‘못’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못’이나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한다.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는 보조 동사 ‘말다’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안’ 부정문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술어가 ‘체언+이다’로 된 경우에는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를 붙여 ‘체언+이/가 아니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서술어 앞에 ‘안’을 놓거나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지’를 붙여 ‘-지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전자를 ‘짧은 부정문’, 후자를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짧은 부정문은 용언에 따라 부정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ㄱ. *밥이 안 설익다. / ㄴ. *내가 너를 안 앞서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은 ㄱ, ㄴ과 같이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사동사, 피동사, 접미사 ‘-하다’로 파생된 일부 용언이나 ‘돌아가다, 들어가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 동사는 어떤 제약도 없이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의 ‘안’ 부정문은 현대 국어와 달리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의 앞에 ‘아니’가 위치하는 부정도 나타났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짧은 부정문은 서술어 앞에 ‘아니’를 사용하고, 긴 부정문은 보조적 연결 어미 ‘-디’를 사용하여 ‘-디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동사의 어근이 명사나 한자어일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사 ‘-하다’ 사이에 ‘아니’를 넣어 짧은 부정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짧은 부정문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뜯기다’가 합성 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② 짧은 부정문인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값싸다’가 합성어이기 때문이겠군.
- ③ 짧은 부정문인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늦추다’가 사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④ 짧은 부정문인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들리다’가 피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⑤ 짧은 부정문인 ‘할아버지 댁 마당이 안 드넓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드넓다’가 파생어이기 때문이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敢히 노티 아니하더라 [감히 놓지 아니하더라]
- ㉡ 비록 아니 여러 나라라도 [비록 여러 날이 아니더라도]
- ㉢ 妙法이 둘 아니며 세 아닐찌 [묘법이 둘 아니며 셋이 아니므로]
- ㉣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변방 밖의 북쪽 오랑캐인들 아니 오겠습니까]
- ㉤ 나도 現在 未來 一切 衆生을 시름 아니 호리라 [나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 대해 시름 아니 하리라]

- ①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용언과 체언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와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다음은 국어의 음운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종성에 놓일 때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한다.
-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자료] 겉웃[거돋], 국밥만[국뺨만], 백분율[백뽀늘]
색연필[생년필], 헛일[헌닐]

- ① ㉠: 국밥만, 색연필, 헛일 ② ㉡: 국밥만, 백분율
- ③ ㉢: 겉웃, 헛일 ④ ㉣: 겉웃, 백분율
- ⑤ ㉤: 백분율, 색연필, 헛일

38.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우리말에서 ‘새-, 셋-, 시-, 시트-’은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붙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들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 셋-, 시-, 시트-’에 대해 탐구해 보세요.

자료	㉠	㉡
㉠	새까맣다	시꺼멓다
㉡	새파랗다	시퍼렇다
㉢	새하얗다	시허옇다
㉣	셋노랗다	시트누렇다
㉤	셋말갈다	시트멀겁다

학 생 : _____ ㉠

- ① ㉠을 보니, ‘새-’와 달리 ‘시-’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된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 ② ㉡를 보니, ‘셋-’과 달리 ‘새-’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에 붙었어요.
- ③ ㉢를 보니, ‘시-’와 달리 ‘시트-’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에 붙었어요.
- ④ ㉣와 ㉤를 보니, ‘새-, 셋-’과 달리 ‘시-, 시트-’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거센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 ⑤ ㉠~㉢와 ㉣~㉤를 보니, ‘새-, 시-’와 달리 ‘셋-, 시트-’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울림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39. <보기 1>은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제35항 모음 ‘ㄱ, ㅌ’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나/거, 났/렸’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붙임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제38항 ‘ㅏ, ㅑ, ㅕ, ㅛ’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보기 2>

- 새끼줄을 열심히 ㉠ 꼬았다.
- 올해도 큰집에서 설을 ㉡ 쇠었다.
- 자전거 앞바퀴에 돌을 ㉢ 꺾어 놓았다.
- 그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 보이어 안타까웠다.
- 산 정상에 올라가니 시야가 탁 ㉤ 트이어 상쾌했다.

- ① ㉠: 모음 ‘ㄱ’로 끝난 어간에 ‘-았-’이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꿘다’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② ㉡: 모음 ‘ㄴ’ 뒤에 ‘-었-’이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췌다’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③ ㉢: 모음 ‘ㅌ’ 뒤에 ‘-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뺨’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④ ㉣: 모음 ‘ㄴ’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뺨어’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⑤ ㉤: 모음 ‘ㅛ’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뺨어’로도 적을 수 있겠군.

[40~43]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의 일부이고, (나)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마트 시티

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라일락 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

목차

- 1. 개요
- 2. 관련 기술
- 3. 사례
- 4. 외부 링크
- 5. 참고 자료

1. 개요 [편집]

도시에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 모델을 의미한다.

2. 관련 기술 [편집]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분야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접목한다. 스마트 시티의 관련 기술로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있다.

사물인터넷(영어: 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4. 외부 링크 [편집]

스마트 시티 누리집(<https://△△△.go.kr/>)

5. 참고 자료 [편집]

김모,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 기반, 인터넷 협회, 2021.6월호.

(나)

진행자: (시작을 알리는 음악)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상식 특특 시간입니다. ㉠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대담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도시 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진행자: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지 여쭙보겠습니다.

전문가: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수거함이 가득 차 불편했던 적 있으시지요? 센서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거함에 센서를 부착하면 이 센서는 수거함이 일정 수준 만큼 찼을 때 담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 신호를 받은 직원은 수거 차량에 수거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수거를 위한 최적 경로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불편함 없이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도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아이디어입니다.

진행자: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나요?

전문가: 네, 센서가 정보 수집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에는 수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차량 등이 모두 센서입니다. ㉔ 그동안은 센서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한곳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 흐름과 같은 정보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면 건물 간에 남는 에너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흥미롭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남는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어떤 건물에 태양광 전지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㉕ 그것을 통해 해당 건물은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는 남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지요? 만약 건물에 에너지를 보관하는 저장고와 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에너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네요. 지금 앱을 통해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건데요, 스마트 시티 기술이 이미 적용된 도시가 있을까요?

전문가: 해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A 지구에는 스마트 가로등이 있습니다. ㉖ 이 가로등은 무선 인터넷의 공유기 역할을 하면서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까지 분석합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센서가 인구 밀집도까지 파악하여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금 △△ 시내에 통제되는 도로가 있다고 해서요, 그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전해 드리고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문자와 이미지가 쓰였다는 점에서, (나)는 음성과 음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① ○ (가)와 (나)는 모두 선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정보 제시 순서를 조정한다. ②
정보 유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나)와 달리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③ ○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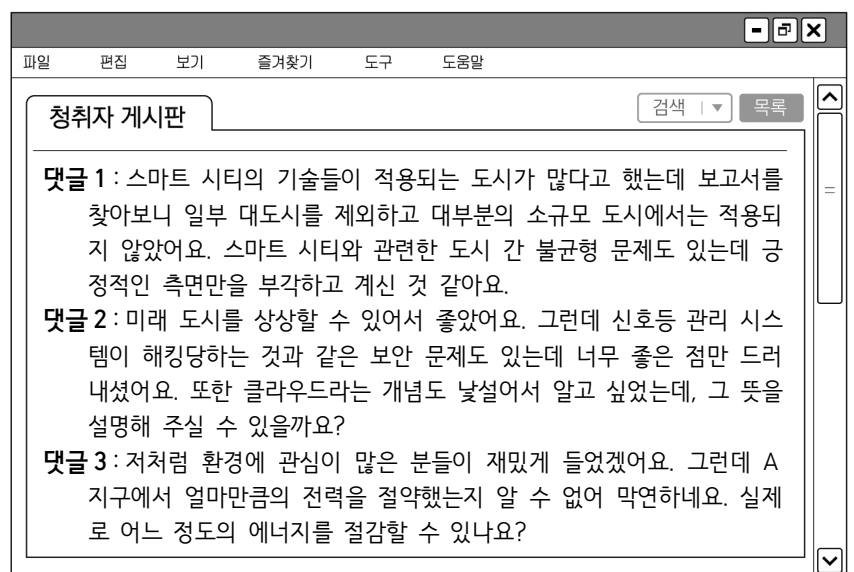
4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정보 수용자가 문서 내용과 관련된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④ 정보 생산자가 제공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⑤ 정보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된 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42.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예고한 것과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 ② ㉒: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하여 수거함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 ④ 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직전 발화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인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 ⑤ ㉕: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공유기 역할’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기능도 수행함을 드러내고 있다.

43. 다음은 (나)를 들은 청취자들이 청취자 게시판에 남긴 내용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댓글 1은 자신이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대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② 댓글 2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제공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질문의 형식으로 요청하고 있다.
- ③ 댓글 3은 교수가 제시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댓글 1과 댓글 2는 모두 대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언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댓글 2와 댓글 3은 모두 대담이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히며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44~45] (가)는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준업'이 제작해 인터넷 공유 문서에 올린 발표 초안이고, (나)는 (가)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친구들에게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았어.

1. 거북목 증후군이란?

거북목 증후군의 정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사람들의 목이 거북이의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

정상목과 거북목 비교

거북목 증후군 현황

연령대	비율
10대	5%
20대	13%
30대	19%
40대	21%
50대	18%
60대	24%

거북목 증후군은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두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해 보았어.

2.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 및 증상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

-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사용
- 어깨를 구부리고 스마트폰 사용
- 턱 괴고 앉기
- 옆드려 책 읽기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

- 거북목은 목, 어깨 근육을 뻣뻣하게 긴장시켜 근육 통증 유발
- 목뼈가 비틀어져 경동맥이 눌러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 유발

거북목 증후군의 진단 방법과 예방법을 세 번째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았어.

3.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및 진단 방법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일반적으로 거북목 증후군은 등이 굽었거나 뒷목이 아픈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어깨가 틀어졌고 경직되었거나, 옆에서 볼 때 목이 쪽 빠져 있으면 거북목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 올바르게 앉은 자세 유지하기
- 적절한 휴식 시간 보내기 (예: 1시간 공부, 10분 휴식)
- 자주 스트레칭 하기 (예: 목 뒤로 젖히기)

(나)

거북목 증후군 발표 단체 대화방

['준업' 님이 '유준', '한비', '세현', '민수', '가영'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준업: 애들아, 안녕! 인터넷 공유 문서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단체 대화방을 열었어.

유준: 세 번째 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어떨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한비: 오~ 그렇게 하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거북목의 정도를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세현: 좋은 방법이야!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는 건 어때? 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

민수: 동의해. 올바른 자세를 알려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친구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

유준: 그리고 애들아,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재목의 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어색하지 않아?

가영: 맞네.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을 제시된 내용 순서에 맞게 수정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한비: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민수: 정말 좋은 생각이다.

세현: 그러면 발표 자료 형식이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아. 준업아, 수정할 수 있지?

준업: 당연하지. 조언해 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서 수정해 볼게.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북목 증후군 환자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모든 슬라이드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안내하고 있다.

45. (나)를 참고하여 (가)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예	아니요
등이 굽었다.	
뒷목이 항상 아프다.	
어깨가 틀어졌고 경직됐다.	
옆에서 볼 때 목이 쪽 빠져 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 ① 올바른 앉은 자세 유지하기
- ② 적절한 휴식 시간 보내기 (예: 1시간 공부, 10분 휴식)
- ③ 자주 스트레칭 하기 (예: 목 뒤로 젖히기)

모니터 높이 = 눈높이
최대한 모니터와 멀리 (40cm 이상)
곧게 편 허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①	36	④	37	④	38	⑤	39	④
40	①	41	⑤	42	⑤	43	⑤	44	②
45	③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안’ 부정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의 ‘뜯기다’는 어근 ‘뜯-’과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로 합성 동사가 아니다.

②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의 ‘값싸다’는 명사 ‘값’과 동사 ‘싸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합성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된다. ③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의 ‘늦추다’는 어근 ‘늦-’과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로, 사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④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의 ‘들리다’는 어근 ‘들-’과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로, 피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할아버지 맥 마당이 안 드넓다.’의 ‘드넓다’는 접두사 ‘드-’와 형용사 ‘넓다’가 결합된 파생어로, 파생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관형사 ‘여러’를 부정하고 있지만,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부사가 아닌 용언 ‘호리라’를 부정하고 있다.

① ㉠에서 보조 용언 ‘아니하다’는 용언 ‘노티(놓-+ -디)’를, ㉡에서 용언 ‘아니며’, ‘아닐씩’은 체언인 ‘들’, ‘세’를 부정하고 있다. ② ㉠에서는 보조 용언 ‘아니하다’가 평서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에서는 부정 부사 ‘아니’가 의문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노티 아니하다’의 긴 부정문이, ㉡에서는 ‘호리라’ 앞에 ‘아니’를 놓은 짧은 부정문이 사용되고 있다. ⑤ ㉠에서는 ‘묘법’이 둘이나 셋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에서는 시름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

37.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변동

‘겉웃’은 ‘겉’의 ‘ㄷ’이 ‘ㄷ’으로 바뀐 후 실질 형태소인 ‘웃’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고, ‘웃’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에 [거둔]으로 발음된다. ‘국밥만’은 ‘밥’의 첫소리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밥’의 중성 ‘ㅂ’이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국빡만]으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백분율’은 ‘분’의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율’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늘]로 발음(㉥)되므로 [백뽀늘]로 발음된다. 합성어인 ‘색연필’은 ‘연’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년]으로 발음(㉦)되며, ‘색’의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년필]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헛일’은 ‘일’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닐]로 발음(㉨)되고, ‘헛’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때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므로 [헛닐]로 발음된다.

38.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27항

‘새-, 셋-, 사-,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

‘새-, 사-’는 어두음이 ‘된소리, 거센소리, ㅎ’일 때 사용하고, ‘셋-, 셋-’은 어두음이 ‘ㄴ, ㄹ’과 같은 울림소리일 때 사용한다. 또한 ‘새-,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ㅏ, ㅑ’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 사용하고, ‘사-, 셋-’은 ‘ㅓ, ㅕ’와 같은 음성 모음일 때 사용한다.

39.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35, 38항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의하여 ‘보이어’는 ‘보-’ 뒤에 ‘-이어’가 어울려 ‘뵤어’ 또는 ‘뵤여’로 줄어들 수 있다.

① ‘뵤었다’는 ‘뵤-’에 ‘-았-’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② ‘뵤었다’는 ‘뵤-’에 ‘-었-’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③ ‘뵤어’는 ‘뵤-’에 ‘-어’가 어울려 ‘뵤’로 줄어들 수 있다. ⑤ ‘트이어’는 ‘트-’ 뒤에 ‘-이어’가 어울려 ‘티어’ 또는 ‘트여’로 줄어들 수 있다.

40. [출제의도] 정보 구성 언어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라디오 대담으로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작을 알리는 음악’과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정보 제공 방식이 선조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순차적인 검색을 허용한다. ③ (나)는 대담을 진행하다가 ‘시내에 통제되는 ~ 바랍니다’는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청취자의 질문을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을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향의 소통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양상을 보인다. ⑤ (나)는 라디오 방송 대담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가)의 ‘라일락’은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에서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편집된 이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② 정보 수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외부 링크’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편집]’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④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은 정보 생산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자료의 출처를 ‘참고 자료’ 항목에서 밝히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나)의 전문가는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스마트 가로등이 공유키 역할을 하는 것과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① 진행자는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② 전문가는 부사격 조사 ‘예’를 사용하여 센서 신호를 받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전문가는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④ 전문가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인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댓글 3은 ‘저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었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댓글 2와 댓글 3 모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① 댓글 1은 ‘보고서를 찾아보’었다는 점에서 추가로 탐색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소규모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언급이 사실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② 댓글 2는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낯설어서 알고 싶었는데’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음을 언급한 후 ‘그 뜻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③ 댓글 3은 ‘얼마만큼의 전력을 절약했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다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댓글 1은 ‘도시 간 불균형 문제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댓글 2는 ‘보안 문제도 있는데 너무 좋은 점만 드러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가)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통해 10대에서 2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친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올바르게 앉은 자세’, ‘휴식 시간’, ‘스트레칭’의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⑤ 모든 슬라이드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정보 전달과 설득

(나)에서 한비는 ‘거북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정한 슬라이드에는 3단계 척도가 아닌 ‘예, 아니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유준이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제목의 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슬라이드의 제목을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준이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한비가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순서 번호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현이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시각 자료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다른 말이 올 수 있는 말들의 관계를 결합 관계라 한다.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와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유형에는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은 것, 용언의 관형사형 등이 있다. 의존 명사 중에는 ㉠ 다양한 유형의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즉 ‘것’과 같이 ‘어느 것, 언니 것, 생각한 것’ 등 다양한 유형의 선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는 의존 명사가 있는 반면, ‘가 본 데’의 ‘데’나, ‘요리할 줄’의 ‘줄’과 같이 ㉡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도 있다.

의존 명사와 결합하는 후행 요소로는 격 조사와 용언 등이 있다. 의존 명사 중에는 ㉢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도 있으나, ㉣ 특정 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데’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지만, ‘만난 지(가) 오래되었다’의 ‘지’는 주격 조사와만 결합하여 주어로 쓰인다. ‘요리할 줄(을) 몰랐다’, ‘그런 줄(로) 알았다’의 ‘줄’은 주로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나 부사어로 쓰이고 주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뿐’은 ‘읽을 뿐이다’처럼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처럼 보격 조사와만 결합하여 쓰인다. 한편 의존 명사가 용언과 결합할 때는 ㉤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것과 ㉥ 특정 용언과만 결합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것’은 다양한 용언과 두루 결합하지만, ‘줄’은 주로 ‘알다, 모르다’와 결합한다.

중세 국어에서도 선행 요소나 후행 요소와 결합할 때 제약 없이 두루 결합하는 의존 명사와 그렇지 않은 의존 명사가 있었다. 가령 중세 국어 ‘것’은 ‘어느 거시 이 가운데 가물[어느 것이 이 가운데 감을]’, ‘奇異한 거슬 머구며[기이한 것을 머금어]’ 등과 같이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여 쓰였다. 반면 현대 국어의 ‘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디’는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었다. 즉 ‘물 들여 든니건 디 스물 히니[말 달려 다닌 지 스물 해니]’, ‘여회연 디 흐마 다숫 히로디[헤어진 지 벌써 다섯 해로 되]’와 같이 ‘디’는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할 수 있었고, 문장에서는 주어로만 쓰였다.

35. ㉠~㉥ 중 <보기>의 ‘바’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의존 명사 ‘바’

-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혔다.
-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바이다.
- 그것은 *그/*생각의 바와 다르다.
- 그것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없다.
- 그가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 ‘*’는 어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6. 윗글과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달음 ㉠ 주리 업스시니이다
[다를 줄이 없으십니다]
- 眞光이 어드우며 불근 ㉡ 될 다 비취샤
[진광이 어두우며 밝은 데를 다 비추시어]
- 부텃 일홈 念홀 ㉢ 썩네 이런 功德 도흔 利를 어드리오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할 뿐에 이런 공덕 좋은 이로움을 얻으리오]

- ① ㉠의 ‘줄’은 현대 국어 ‘줄’과 달리, 주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 ② ㉠의 ‘줄’은 중세 국어 ‘것’과 달리,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
- ③ ㉡의 ‘되’는 현대 국어 ‘데’와 같이,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의 ‘되’는 중세 국어 ‘디’와 달리, 목적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 ⑤ ㉢의 ‘썩’은 현대 국어 ‘뿐’과 달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37. ㉠과 ㉡에 모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의 [탐구 자료]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탐구 내용]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단어는 여러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 두 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탐구 자료]

꽃향기[꼬탕기], 똑같이[똑까치],
흙냄새[흥냄새], 첫여름[천너름],
넙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쪼리다]

- ① 꽃향기, 똑같이
- ② 꽃향기, 흙냄새
- ③ 첫여름, 넙죽하다
- ④ 첫여름, 읊조리다
- ⑤ 넙죽하다, 읊조리다

38.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우리 스무고개 할래? [자료]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무얼 생각하는지 맞춰 봐.

[자료]

높이다 접히다 여닫다

학생 2: 좋아. 그 단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었니?
 학생 1: 아니,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 2: 그렇다면 ㉠은 아니겠군. 그러면 단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같니?
 학생 1: 아니, 이 단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
 학생 2: ㉡는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고, ㉢는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졌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단어는 ㉢이구나!
 학생 1: 맞아, 바로 그거야.

- | | ㉠ | ㉡ | ㉢ |
|---|-----|-----|-----|
| ① | 여닫다 | 접히다 | 높이다 |
| ② | 여닫다 | 높이다 | 접히다 |
| ③ | 높이다 | 여닫다 | 접히다 |
| ④ | 높이다 | 접히다 | 여닫다 |
| ⑤ | 접히다 | 여닫다 | 높이다 |

3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동생이 내가 읽던 책을 가져갔다.
 ㄴ. 그는 자신이 그 일의 책임자임을 주장했다.
 ㄷ.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ㄹ. 이곳의 따뜻한 기후는 옥수수가 자라기에 적합하다.

- ① ㄱ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ㄴ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ㄱ과 ㄷ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ㄴ과 ㄹ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ㄷ은 ㄹ과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이 방송을 시청한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요일마다 마을을 탐방하는 '뚜벅뚜벅 마을 여행'의 뚜벅입니다. 지난주에는 □□궁의 동쪽에 있는 ▽▽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궁의 서쪽에 있는 △△ 마을에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 함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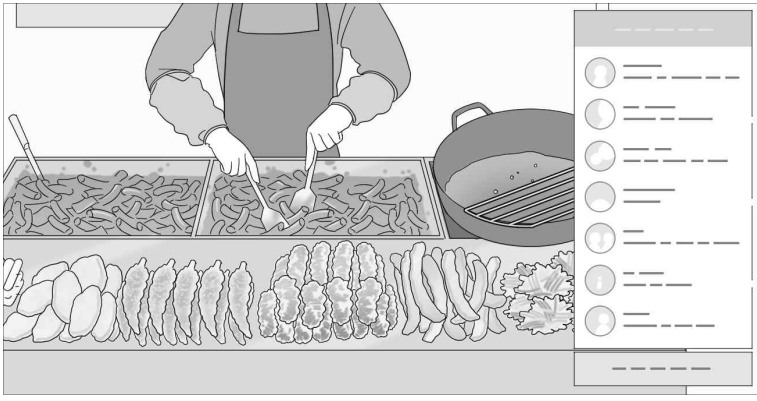
여기가 △△ 마을 입구입니다. △△역에서 딱 5분 걸렸어요.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네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카메라에 있는 소음 제거 장치를 조절해 볼게요. (방송 장비를 조작하며) 이제 잘 들리죠?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네, 다행이네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밀동만 남은 나무가 있네요. 무슨 사연이 있나 알아볼게요. 여기 안내문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나무는 수령이 300년 된 백송으로 △△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의 역할을 해 왔으나, 20××년 태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 30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 마을을 지켜 주었는데, 태풍에 쓰러져 이렇게 밀동만 남은 걸 보니 안타깝네요.



자,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작은 문방구도 있고, 예쁜 카페도 있고..... 저기 예쁜 한옥이 한 채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여기 안내 표지판을 보니까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지금은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래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행랑채를 지나 사랑채로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마당이 정말 예뻐요. 이 문을 지나면 안채가 나오는데, 별로 크지는 않아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간직한 곳이네요. 아, ㉡ 그런데 벌써 배가 고파졌어요. ㉢ 우선 뭐 좀 먹어야겠어요.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 시장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표지판을 보니까 이 길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저기 보여요. (한참 걸어간 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갔던 백송 바로 옆인데요. 괜히 땀 돌아서 왔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백송을 보고 △△ 시장을 먼저 둘러 본 다음에 한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 백송에서 시장까지는 5분, 시장에서 한옥까지는 10분 정도 걸리겠어요.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어요. 전통 시장이라 그런지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곳 같아요. 참 정겹네요. 그리고 먹거리도 참 많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으세요?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 알려 달라는 분들이 많네요. ㉤ 제가 먹어 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 드릴게요. (떡볶이 맛을 보고) 다른 떡볶이보다 훨씬 쫄깃해서 식감이 좋고 매콤 달콤하네요.



(나)

지역 문화 탐구 동아리에서 △△ 마을을 탐방하기 전에 뚜벅 님 방송을 참고해 사전 안내용 슬라이드를 제작해야겠어. ㉠ 탐방 경로를 안내하는 슬라이드에서는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되,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순서로 제시하고 각 장소로 이동하는 소요 시간도 제시해야지. ㉡ △△ 시장을 안내하는 슬라이드에서는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구를 넣어 주고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겠어.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므로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음질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개선해 정보를 전달한다.
- ② 수용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에 제작된 자료 화면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 ③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방송 진행자가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한다.
- ④ 방송은 시각과 음성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므로 안내문의 텍스트 정보를 방송 진행자가 읽어서 음성 언어로 전달한다.
- ⑤ 일정한 주기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진행자가 지난 주에 했던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댓글 창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냇달 1일 전
방송 잘 봤어요. 그런데 300년 된 백송이 쓰러진 걸 보니 대단한 태풍이었나 봐요. 그게 무슨 태풍이었나요? 댓글

↳ **뚜벅** 1일 전
20××년에 있었던 태풍 ‘○○’ 였대요. 우리나라에서 기상을 관측한 이래 가장 강력한 것으로 기록된 태풍이에요. 댓글

↳ **냇달** 1일 전
아! 고마워요. 댓글

별총 1일 전
어렸을 적에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백송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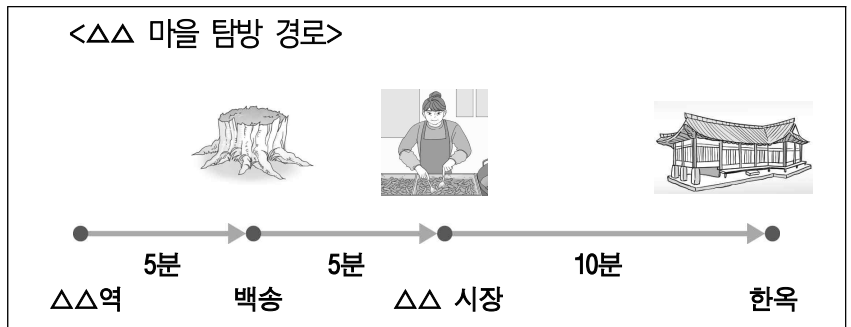
↳ **뚜벅** 1일 전
그 백송의 씨앗을 발아시켜서 지금 어린 백송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아쉬워 마시길……. 댓글

↳ **별총** 1일 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댓글

① ‘냇달’과 ‘별총’은 ‘뚜벅’의 댓글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고 있다.

- ② ‘뚜벅’은 방송에서 자신이 잘못 전달한 정보를 바로잡아 ‘냇달’에게 댓글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뚜벅’과 ‘별총’은 ‘냇달’의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세 사람이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별총’은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뚜벅’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별총’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뚜벅’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사전 안내용 슬라이드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시장>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정겨운 △△ 시장

- ◆ 교통편
 - 지하철: X호선 △△역
 - 버스: 6X, 4X 백송 앞 하차
- ◆ 이용 시간
 - 08:00 ~ 21:00
 - 매주 화요일 정기 휴업

- ①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에는 뚜벅 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하여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②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 탐방 순서를 정하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추천한 경로를 제시하자.
- ③ 각 장소로 이동하는 소요 시간을 제시하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안내해 준 이동 시간을 구간별로 나타내 주자.
- ④ 대상의 특징을 보여 주는 문구를 넣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말을 활용하여 만든 문구를 넣어 주자.
- ⑤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를 넣어 주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교통편과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 주자.

4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 ‘이나’를 사용하여 백송이 △△ 마을을 지켜 주었던 긴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런데’를 사용하여 한옥에 대한 화제를 먹거리에 대한 화제로 전환하고 있다.
- ③ ㉠: 지시 대명사 ‘뭐’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④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이동 소요 시간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인칭 대명사 ‘제’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44~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이고, (나)는 이와 관련하여 나는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PDF 파일 다운로드
(<https://mdlib.co.kr/exp02>)

◆ 기기 사용 안내

(1) 무인 도서 대출

도서 검색 및 선택 → 회원증 인식 → 도서 찾기 → 대출 정보 확인

(2) 무인 도서 반납

반납 도서 인식 → 도서 투입 → 반납 처리 → 반납 정보 확인

◆ 유의 사항

-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대출이 제한됨.
- 훼손된 도서는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변상 처리해야 함(기타 안내의 '훼손 도서 변상 처리' 참조).

◆ 기타 안내(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

[야간 예약 대출](#) [예약 대출 취소](#) [훼손 도서 변상 처리](#)

[회원 가입 바로 가기](#)

(나)

20XX년 X월 13일

창윤: 용주야, 너 혹시 우리 학교 도서관에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 생긴 거 아니?

용주: 응, 나는 벌써 써 봤는데.

창윤: 나는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어.

용주: 지난달에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회원 가입을 다시 하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몰랐어?

창윤: 내가 지난달에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어서 그 안내를 받지 못했어.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용주: 내가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공유할게. 여기 보면 '회원 가입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그걸 누르면 돼. <https://mdlib.co.kr/service/digital02.asp>

창윤: 응, 고마워.

20XX년 X월 15일

용주: 창윤아, 회원 가입은 했니?

창윤: 응, 네 덕분에. 그런데 오늘 무인 도서 대출기로 빌린 책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책이 손상되었어. 이를 어찌지?

용주: 손상된 책은 변상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창윤: 변상 처리?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데?

용주: 내가 전에 보내 준 사용 설명서 중 '기타 안내' 항목에 '훼손 도서 변상 처리' 안내가 있어.

창윤: 13일에 보내 준 자료에 있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창윤: 찾았다. 이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말하는 거지? <https://mdlib.co.kr/service/digital02.asp>

용주: 맞아, 거기 보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해.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작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용 설명서는 특정한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기기 사용 안내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 ③ 기기 사용 안내는 화살표를 활용하여 조작 순서가 드러나도록 안내했다.
- ④ 유의 사항은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 ⑤ 기타 안내는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정보를 (나)의 사용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하고 있군.
- ② (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군.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과거에 소통한 이력에서 가져와 활용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간 예약 기능을 활용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수정하였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개조한다'를 대신하여 '개선한다'로 어휘를 바꾸었으므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를 바꾸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②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잘못된 접속어인 '그러나'를 삭제하였으므로, 잘못된 접속어를 삭제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③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어긋나는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④ <보기>의 네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인 '에너지를'을 추가했으므로, 필요한 문장 성분을 추가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41.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프로그램이 자료를 전시하는 데 치우쳐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학생들이 신발 발전기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대화 맥락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다.

건의 내용을 점검하는 논의에서 건의 내용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작년 행사를 점검하는 논의에서 전시에 치우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자료가 일부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논의에서 학생들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발 발전기를 제작해서 신고 걷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3문단에서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발전할 때 청년층 인구 증가의 효과가 컸던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시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에 관한 쟁점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③ 청년층 인구 감소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 양상을 '초고'에서 다루었지만, 문제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근거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④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을 언급하지만 기존 방안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⑤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의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작문의 계기가 포함되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관용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에서 앞 문장과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대용 표현을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밝힌 작문의 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③ 관용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④ 1문단에서 밝힌 작문의 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용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관용구를 활용하지 않았고, 대용 표현도 활용하지 않았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보기>의 (가)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의 전체 인구수 변동 추이와 전년도 대비 인구 감소율 및 20~30대 청년층 인구수 변동 추이와 전년도 대비 청년층 인구 감소율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다)는 ○○시의 청년층 인구가 타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제시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이다. 이 인터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함께 정주 여건의 악화를 청년층 인구 감소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가)와 (다)를 활용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청년층의 구체적인 인구 감소 속도를 비교한 값을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2018년과 2022년의 전체 인구수 감소 추이를 활용하여 약 30만 명의 인구가 약 27만 명으로, 10%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문단에서 ○○시의 전체 인구가 2018년 비해 2022년에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나타낼 수 있다. ② (나)는 인구 증가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시 20~30대 청년층 주민들의 응답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3문단에서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과 문화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정주 여건이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다)의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육,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의 열악함을 청년층 단위에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④	38	①	39	⑤
40	②	41	①	42	①	43	③	44	④
45	④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를 이해한다.

의존 명사 '바'는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한다. 후행 요소로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의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또한 의존 명사 '바'는 후행 요소로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존 명사를 이해한다.

㉠의 '줄'은 현대 국어 '줄'과 달리, 주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고, 선행 요소로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다. 중세 국어 '짓'은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여 쓰였다. ㉡의 '딛'은 현대 국어 '딛'과 같이,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다. 중세 국어 '디'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 않았다. ㉢의 '뽀'는 현대 국어 '뽀'와 달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었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다.

'첫여름[천너름]'은 첨가('ㄴ' 첨가)가 한 번,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고, '울조리다[읍조리다]'는 탈락(자음군 단순화)이 한 번, 교체가 두 번(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일어나므로 ㉠과 ㉡에 모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과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여단다'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접히다'는 동사 '접다'의 어근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며 만들어진 동사이다. '높이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동사이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ㄷ'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며 'ㄹ'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40. [출제의도] 매체 정보의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가)의 방송 진행자는 수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흥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를 위해 사전에 제작된 자료 화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③ (가)에서는 수용자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떡볶이 맛을 알려 달라고 한 요구에 따라 방송 진행자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참여자의 수용 양상에 대해 이해한다.

'낮달'과 '별총'은 방송에서 언급된 '백송'과 관련해 추가된 정보인 '태풍'과 '어린 백송'에 대한 정보를 '뚜벅'의 댓글을 통해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⑤ '뚜벅'이 '별총'의 댓글과 관련하여 '백송'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뚜벅'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별총'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한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에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 '뚜벅 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하여 그림 자료로 보여 주지는 않았다. ㉡에 그림 자료로 제시된 '백송', '△△ 시장', '한옥'은 모두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소재이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우선 뭐 줘 먹어야겠어요.'에 사용된 '뭐'는 정하지 않은 대상을 이르는 부정칭 대명사로, 방송 진행자가 아직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수용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가)를 보면 '유의 사항' 아래에 '회원 가입 바로 가기'가 있으므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의 사항을 읽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유의 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PDF 파일의 형태로 '사용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② '기기 사용 안내'는 사용자가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무인 도서 대출'과 '무인 도서 반납'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③ '기기 사용 안내'는 화살표를 활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기기를 조작하는 순서가 잘 드러나도록 안내했다. 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통해, '기타 안내'의 각 항목은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안을 이해한다.

(나)에서는 '20XX년 X월 15일'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20XX년 X월 13일'에 소통했던 과거의 이력에서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가져왔다.

[오답풀이] ① (나)의 사용자들이 (가)에 제시된 정보를 유통하며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였으나, (가)에 제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한 것은 아니다. ② (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한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